

찬란한 옥과같이 갈리고 갈리
단단한 쇠와같이 달리고 달려
영도에 날고뛰는 용마보다도
현해를 구비치는 고래보다도
우리는 지혜롭고 더욱 날쌔세
새로운 우리나라 기념답으로
크나큰 이름내는 경남중고교

慶南中同窓會報

발행·편집인: 안강태
발행처: 경남중고등학교동창회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4가 52-3 골든 O/T 411호
Tel:(051)245-7551~3 · FAX:245-7550
인쇄처: (주)동방인쇄
Tel:(051)636-9477 · FAX:636-9478

단기 4333년(음력 6월 14일)

본부 자문위원 3명·부회장 8명 새로 선임 '활력 넘치는 집행부' 큰 기대

회장단 회의 겸 송규정 부산상의 회장 축하연 열어

본부동창회 제29대 집행부 '안강태호(安康泰號)'가 올해 하반기 본부의 조직 극대화를 양망(揚網)하기 위한 출항에 즈음해 자문위원 3명과 부회장 8명을 새로 선임, 평화항진을 예고했다.

안강태 본부 회장(11회·대선 조선 대표)은 지난 6월23일 오후 6시30분 부산 동구 범일동 대어(일식전문점)에서 회장단 회의 겸 송규정 부회장(16회·원스틸 대표)의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취임 축하연을 함께 주재했다.

안 회장은 "활력 넘치고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할 집행부가 되게끔 역량을 결집하자"는 요지의 인사말을 한 후 자문위원으로 선

임된 오완수(직전부회장·대한제강 회장) 김병기(남아제관 회장) 현정춘(동문·이상 11회·동기회장·초당서예연구실 대표) 등 동기생 3명과, 부회장으로 선임된 박병선(14회·신흥모직 대표) 손부홍(15회·손부홍정형외과의원장) 양성민(16회·조광폐인트 회장) 노기태(20회·국제신문 대표) 이재호(21회·동기회장·변호사) 김두천(26회·서울제분식품 대표) 이진호(34회·동광개발 대표) 정성윤(동문·39회·미광운수 부사장) 등 8명에게 각각 선임장을 전달했다(관련 명단 2면에).

안 회장은 이어 지난 4월 25일

동창회 사상 처음으로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에 취임한 송규정 본부 부회장을 위한 축하연을 주재했다. 자문위원 및 회장단과 이날 특별히 초청된 추준석(20회·부산항만공사 사장) 옥준원(부산고검 검사) 이인수(부산해양수산청장·이상 28회) 박성철(29회·부산고법부장판사) 윤인태(동문·30회·부산고법부장판사) 등은 축배를 나누고 서로 격려하면서 이구동성으로 "동창회의 활성화와 용마가족의 유대강화를 촉진하는 견인차 역할이 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앞서 회장단 회의는 '수석부회장 선임' 문제는 더욱 중지를 모은 후 결론을 내리기로 뜻을 모았다.

얼굴

김병호(15회) 한나라당 부산시당 위원장



2선 국회의원인 김병호(동문 15회·본부 부회장·한나라당 부산진갑·사진)은 최근 한나라당 부산시당 신임 위원장에 취임했다.

추진력과 실천력이 강하다는 김동문은 앞으로 조직 확대·재정 기반 확충·사기 진작·화합·결속 등을 우선 과제로 내걸었다.

특히 김동문은 내년에 치를 부산의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 '총사령관'을 맡았기 때문에 국회의원·구·시의원·자치단체 간 원활한 입법·정책·예산공조 시스템을 구축해 시당 활성화에 전력투구하겠다고 밝혔다.

언제 어디서 만나도 미소를 짓기 때문에 '스마일 킴'으로 불리어지고 있는 김동문은 "용마가족들의 자긍심 선양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깨끗한 정치인"으로 평가받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려대 정외과 △국제신문·부산일보 사회부 등 차장 △KBS 정치부장·보도국장·TV뉴스주간·보도본부장 △LG 상남연론재단 이사 △동아방송대학장 △제16~17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홍보위원장 △APEC 특위 한나라당 위원장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 △부산시 청년연합회 상임고문 △한국환경과학회 고문.

제29회 A(청년) 대회 3관왕 위업 제14회 A(중년) · 22회(장년) 도 왕좌에

본부 기별대항 바둑대회

준우승 제12·25A·28회 차지

지난 6월 26일 부산 동구 중앙동 통운빌딩 6층 중앙바둑센터에서 열린 제5회 본부동창회장기 기별대항 용마바둑대회에서 제14회 A(중년부)·제22회(장년부)·제29회 A(청년부)가 각각 왕중왕에 등극했다. 특히 제29회 A는 이날 청년부에서 최강자의 영예를 안아 통산 대회 3관왕의 위업을 세웠다.

이날 오전 10시 제11회를 비롯, 모두 22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스위스리그전으로 펼쳐진 대회에서 중년부(제11·12·13A·

13B·14A·14B·16·17회 A)는 제14회 A팀이 결승국에서 제16회의 추격을 따돌리고 우승, 감격을 누렸다. 제12회는 준우승을, 제13회 A와 제17회 A는 각각 3위와 장려상을 받았다.

장년부(제17B·18·21·22·23·24·25A·25회 B)는 제22회

가 결승국에서 제25회 A와의 피

말리는 접전 끝에 패권을 차지했

다. 제25회 A는 준우승을, 제24회

와 제21회는 각각 3위와 장려상에 랭크됐다.

청년부(제28·29A·29B·30·31·32회)는 결승국에서 제29회 A가 제28회와의 격돌 끝에 왕좌를 쟁취, 작년의 패배를 설욕했다. 제28회는 준우승을, 제31회와



제5회 본부동창회장기 기별대항 용마바둑대회(6월 26일 중앙바둑센터) 청년부 결승국에서 제28회 팀(원쪽)과 제29회 A팀이 격전을 벌이고 있다. 이 대국에서 제29회 A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제32회는 각각 3위와 장려상을 받았다(제29회 B가 4위였으나 동일 기수인 제29회 A가 우승함에 따라 제32회에 양보했음).

한편 이벤트 행사로 응원단 중회장자에 한하여 개인 토너먼트전을 벌여 권오균(21회)·소유남(28회)·동문이 우승을 했다.

앞서 이날 오전 9시 50분 우중

에도 불구하고 200여 기사·응원단이 참석한 기념식(사회: 임강택 용마바둑회 총무이사·22회)에서 이재호(21회)·김대욱(29회) 본부 부회장과 사무국 김병수 국장 겸 총무부장(22회)·황유명 부총무(29회)·강수경 용마바둑회장(21회)·한병조(13회)·문운용 고문(14회)·임용수 자문

노영일(11회) 우승 부산시민바둑대회 노년부

노영일(11회) 동문은 지난 6월 18~19일 부산종합운동장 사직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7회 부산시민바둑대회 노년부(65세 이상 남자 32명 출전)에서 왕좌에 등극, 우승컵과 상금 5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노동문은 최근 동기회바둑대회 우승과 함께 올해 통산 2관왕의 감격을 누렸다.

위원(13회)·이상용 부회장(29회)·신병식 재경 용마기우회 전총무(24회·SBS 바둑해설위원)·권오균 경총회장(21회) 등이 소개됐다. 대회는 오후 6시 시상식에 이어 열린 단합회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本格熟成品
味의明太子
맛의 명태자



- 전통적 젓갈 문화는 새롭게 바뀌어야 합니다.
- 엄선된 명란과 독자적 방법의 양념으로 최고만을 고집합니다.
- 웰빙시대에 맞는 새로운 컨셉으로 대개성이 앞장서 나갑니다.
- 우리는 건강을 먼저 생각하고 맛으로 승부합니다.
- 실속있고 차별화된 선물로 좋은 제품입니다.

<http://www.dkfnb.co.kr>

경남고 21회 강창수 경남고 54회 강치범 올림

구분	제품명	발명의 명칭	출원번호	출원일자	출원상태
생산품목 (특허출원중)	1. 味의明太子 (맛의 명태자) 2. 明太子醬(명태위젓갈) 3. 양념 魷魚 醋醬(오징어젓갈) 4. 味의鮭醬(맛의복)후라이 5. 味의鮭福(맛의복)가라아게 6. 味의鮭福(맛의복)이찌야보시	저식염 냉동명란젓갈의 제조방식 저식염 냉동명란젓갈의 제조방식 저식염 냉동오징어젓갈의 제조방식 복 후라이의 제조방식 복 양념후라이의 제조방식 복 반건포의 제조방식	10-2004-0069767 10-2004-0069768 10-2004-0069769 10-2005-0027004 10-2005-0026354 10-2005-0026351	2004.09.02 2004.09.02 2004.09.02 2005.03.31 2005.03.30 2005.03.30	출원중 출원중 출원중 출원중 출원중 출원중
입점업체	삼성분당프라자백화점, 신세계 명동점·강남점, 스타슈퍼점(도곡동 삼성타워팰리스지하), 하이퍼마켓 잠실 갤러리아 팰리스, 삼성인터넷몰, 대경인터넷몰, 레이크싸이드CC, 곤지암CC, 동래CC, 부산CC, 울산CC, 여성잡지(행복이 가득한 집)통신판매				

시 평

이인수

제28회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며칠 전 한 학생에게 “바다가 무엇이냐?” 물어봤다. 그러자 그는 “아, 바다…”하고 주춤거렸다. 어찌보면 참 쉬운 말인 듯 한데 ‘안다’는 것인지, ‘모른다’는 것인지 종잡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 말은 어찌면 정답인지도 모르겠다.

바다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백인백색 전혀 다른 모습이다. 낭만으로, 신비롭고 두려움의 대상으로, 미래의 부(富)를 꿈꾸기도 한다. 이렇듯 바다는 직업이나 사는 환경 등에 따라 인식대가 다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 그것은 ‘미래 인류가 더불어 살아가야 할 공동체이자 모체(母體)이며, 영양소’라는 점이다.

바다는 생물자원의 보고로서 모두 40만 종으로 추산하는데, 이 가운데 4만 종의 생물에는 항암제·당뇨치료제 등 인간에게 유익한 신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기술개발이 진행 중에 있다. 또 해양에너지 자원은 공해가 없고 고갈되지 않는 천연자원으로 조력과 파력 등을 이용한 대체에너지 연구개발도 추진되고 있다. 심해저에는 육지의 수십~수백에 달하는 망간니켈 코발트 구리 등 전략광물이 있고 세계의 석유 생산량의 30%가 바다에서 생산된다.

이렇게 중요한 바다를 1200년 전 장보고 대사가 동북아 국제해상 무역권을 장악하여 찬란한 해상왕국을 이루하였으나

바다는 콜럼버스의 계란

그 이후 해양강국의 꿈을 접고 역사의 뒤안길에서 해양사를 다루어 대륙만을 바라보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었다.

근세에 와서 강대국에 의해 국토가 분단되어 타의나마 해양사가 우리들 전면에서 부상하게 되었고 현재 우리나라에는 조선업 세계 1위, 선박 보유량 세계 7위, 컨테이너 처리량 세계 5위, 해양 교역량 6위를 달리는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10대 해양국가로 성장하였다.

세계지도를 거꾸로 보면 한국은 미래의 바다인 ‘태평양을 앞마당으로 하여 나갈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해양국’이고 남한 면적의 4.5배에 달하는 배타적 경계수역과 국토 면적의 24%에 달하는 갭벌자원, 세계 주요항로에 위치한 항만, 연 100조 원에 달하는 해양생태계의 잠재적인 가치 등 천혜의 자연적 여건도 갖추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UN해양법협약의 발효, 리우환경회의 ‘의제21’의 채택 등 인류 공동의 자산인 해양보전·관리를 위한 규범을 마련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미 자국의 미래 해양 주도권 확보를 위하여 치열한 싸움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국토가 좁고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그 개발의 당위성과 중요성은 논할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바다를 이해하고 개발하며, 이용·보전해 나갈 것인가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누가 먼저 개발·발전시켜 나가느냐가 중요하다고 할 것이며, 미래의 바다는 ‘콜럼버스(Christopher Columbus)의 계란’처럼 먼저 성취하는 자의 몫이 될 것이다.

‘바다를 지배하는 국가가 세계를 지배한다’라는 서양 격언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바다가 우리 미래의 가장 소중한 자산임을 깨닫게 된다.

용마부인들 사상 초유 남편 모교 교가합창

경팔회, 경부합동야유회서 ‘깜짝출연’ 박수갈채

“찬란한 옥과 같이 갈리고 갈려…” 남편들의 어울마당에 초청된 희년(稀年-일흔 살)을 눈앞에 둔 용마부인들이 사상 초유로 남편들 모교의 교가를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합창해 신선한 충격과 함께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5월26일 오후 경북 김천시 근교 황악산 자락의 직지사 절골, 경팔회(제8회동기회) 경부합동야유회에서 여홍 한마당이 무르익을 무렵 이 같은 깜짝쇼를 연출한 주인공은 서울아가씨합창단(?) 이들은 이어 ‘돌아와요 부산항’을 앵콜송으로 선시했고, 부산아가씨들도 “우리 실력 한 번 불래!” 하며 ‘사랑해 당신을’ 합창해 경부대항전을 방불케 했다. 이들의 신록보다 더 싱그러웠던 화음은 40여 년 부부금슬이 결정(結晶) 시킨 사랑의 한기였다.

이에 남편들은 6.25전쟁 중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며 목이 터져라 부르고 불렸던 ‘낙동강’을 화답송으로 선사했다(서울아가씨들의 ‘교가제창’ 기획은 배주원 동문의 작품).

등대회 활성화
‘수혈운동’ 전개제31회이하 회원들
각종 과제 실천기로 결의

등대회(부산지역 해운 항만 수산 등 관련업계 동문 모임)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신선한 수혈 운동’이 회원 중 제31회이하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이 주축이 돼 적극 추진되고 있다.

지난 5월 19일 오후 7시 부산 사하구 감천동 이화정에서 제31~50회 30여 회원들이 모여 등대 회의 활성화 촉진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들은 모든 회원이 집행부 임원의 자세로 헌신, 미참여 회원 발굴, 제31회이상 동기회 선배 초청 간담회, 화합과 결속 강화, 각 동기회별 대표 간사 선임, 정기-임시회의 개최와 참석자 극대화, 회원 전원

새로 선임된 본부 자문위원·부회장

구 분	성 명	회	직 책	참 고
자문위원 (3명)	오완수	11	대한제강(주) 회장	전 본부 부회장
	김병기	11	남아제판(주) 회장	동기회 고문
	현정춘	11	초당서예연구실 대표	동기회 회장
부회장 (8명)	박병선	14	신흥모직(주) 대표이사	전 본부 부회장
	손부홍	15	손부홍정형외과의원장	전 본부 부회장
	양성민	16	조광페인트(주) 회장	전 본부 부회장
	노기태	20	국제신문사 대표이사	동기회 회장
	이재호	21	이재호법률사무소 변호사	동기회 회장
	김두천	26	서울제분식품(주) 대표이사	경야회 부회장
	이진호	34	동광개발(주) 대표이사	
	정성윤	39	미팡운수(주) 대표이사	

‘05연회비 6월까지 완납 등 다양한 과제를 실천토록 결의했다. 특히 제31회이상 동기회 선배 초청 간담회는 매월 한 차례(점심 시간 이용) ‘1개 선배기에 회원 전원 참석’ 원칙을 지켜나가기로 했다.



제6회 동문들이 경남 김해시 근교 장유 폭포 유원지 옆 초원의 집에서 열린 5월 29일에 우정을 나누고 있다.

장유폭포에 활짝 피는 ‘우정의 무지개’

제6회동기회 40여 명 야유회서 만나 회포 풀어

신록의 속삭임 속에서 시원하게 내리꽂히는 폭포수… 회수(喜壽)를 바라보고 있는 우정들이 아름다운 자연의 앙상블에 심취하며 ‘낭만의 무지개’를 꽂고 있다.

지난 5월29일, 경남 김해시 장유읍 근교 장유폭포 유원지에 있는 초원의 집은 제6회동기회의 춘계야유회로 시끌벅적했다.

“이 나이에 잘나고 못나고 어디 무슨 소용이 있을까?”

“우정 하나로 뭉치고 건강 지키며 자주 만나세!”

이길상 회장이 주재한 이날

야유회는 40여 명이 참석하여 나이를 잊은 채 재담과 익살을 토해내고 장기와 노래 실력을 뽐내며 우정을 확인했다.

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들 나이쯤 되면 못난 사람도 잘난 사람도 없다고 하더라”며 “가진 자의 우쭐 거림이나 가지지 못한 자의 의기소침은 모두 버리고 우정 하나로 결속하자”고 말해 공감의 박수를 받았다.

이날 동문들은 소주잔을 나누며 건강을 잘 지키고 자주 만날 것을 다짐했다.



지난 5월26일 경북 김천시 근교 직지사 절골에서 열린 제8회 경부합동동기회를 즐긴 동문·가족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규한 재경회 회장과 이성호 부산회 회장이 공동주재한 야유회는 앞서 이날 오후 12시30분께 부산의 40명과 서울의 33명(각각 부인 포함)이 직지사 주차장에서 서로 악수를 나누면서 우정을 재확인했다.

1년 만의 재회였지만, 평생 처음 만난 듯 “야, 이게 누구야”, “엇 모릅니다” “그대로구나…”, “졸업 후 처음 만나는 거 아이가?” 등등 반기움을 얹누르지 못한 마음들이 석류알 터지듯 특특 터져 나왔다.

이날 야유회의 하이라이트는 <청춘을 찾습니다> 타이틀의 3막짜리 어촌한마당. 막이 열리자 재경 회장과 부산 회장이 “만원사례”的 인사와 함께 등장인물·잔치의 시놉시스(개요)를 읊조린 후 퇴장하자 곧바로 혼자 참석한 ‘초리한 사내들’과 손을 꼭 잡은 채 미소짓는 부부들이 등장. 순서대로 ‘자기처지’를 독백(소개)한다. 박수와 웃음이 섞여 분위기가 뜨거워진다(제1막).

잠시 무대가 회전되고 조명이 켜지자 진수성찬의 잔치상이 펼쳐진다. 축배에 이어 남녀 모두 체면불구 산체비빔밥에 넋을 뺏긴다. ‘목망이란 이런 것이야!’라는 현수막(?)이 펼쳐지자 이내 무대가 또 회전한다(제2막). 갑자기 밴드가 울려퍼지더니 화려한 무대복으로 잔뜩 멋을 부린 MC(배주원)가 등장.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천부적 재담으로 관객들의 배꼽을 빼지게 한다. 이어 차례로 남녀 가수들의 열창과 놀이패들의 묘기가 무대를 휘젓는다(제3막).

특히 어울마당은 서울의 이창근 동문의 부인이 비법으로 담아 손수 빚어온 동동주와 맛깔스런 푸짐한 안주로 ‘술이 술을 권하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이날 잔치는 오후 3시께 막을 닫았다.

한편 서울 경우 박재범=30만 원·지창수 김호석 추경석 김영학=각 20만 원·김진석 이유환 배주원 동문=각 10만 원·박동열=20만 원·장혁표=양주 1병(불침)을 각각 협찬해 큰 도움이 되었다.

경총회 '가족 만남의 날' 성황

부인들에게 상품권·꽃다발 전달 격려

작은 음악회 분위기 살리고
‘술의 세계’ 특강 좋은 반응

본부동창회 총무협의회(일명 경총회) 주관 ‘가족 만남의 날’ 행사가 지난 6월 18일 오후 부산 동구 범일동 하모니웨딩타운에서 권오균 회장(21회) 주재로 열렸다.

이날 행사는 각 동기회 살림살 이를 도맡아 동분서주하며 동창회 조직 활성화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총무들이 ‘한쪽 수레바퀴’가 되고 있는 부인들을 격려-위안하기 위해 마련한 것(사회:정인식 기획간사·28회)

권오균 회장은 안강태 본부 회장 격려금을 전달(황유명 본부부총무·29회)받은 후 인사말을 통해 회원 부인들의 노고를 치하



사실 초유의 가족동반 경부활동아유회(6월4~5일)를 가진 제41회 동문·가족들의 다정한 모습들.

사상 첫 경부합동 ‘사랑의 운동회’

제41회 60여 명 충주여행

지난 6월 4~5일 제41회동기회(일명 사일회)는 창립 후 처음으로 충북 충주시 근교 충주호리조트에서 경부 가족동반 ‘사랑의 운동회’를 개최했다. 백창봉·홍종철 부산·서울 회장이 공동주재한 이번 행사는 동문·가족 60여 명이 참가했다.

행사 첫날인 4일은 자녀들의 물썰매타기 등 놀이에 이어 전 야제가 열려 환성·폭소·박수 갈채 속에서 노래와 장기자랑이 펼쳐졌다.

뒷날 5일은 족구시합 등에 이어 충주호 일주 유람을 한 후 귀가길에 올랐다.

이번 행사를 위해 백창봉 본부

했고 경총회의 미래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밝혀 공감대를 확산시켰다. 그리고 오는 가을행사는 가족동반 문화탐방여행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한 후 참석자 모두에게 신간 서적을 나눠주었으며, 특히 부인들에게 별도로 상품권과 꽃다발을 선사했다.

예년의 야유회행사 대신 치러진 이날 모임은 칵테일 파티~작은 음악회~특강~회식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초청강사로 참석한 이정식 동문(22회)은 ‘업그레이드 된 술의 세계’ 제하의 특강을 통해 현재 지구촌에서 이용되고 있는 술의 종류와 역사 등을 소개, 총무들로부터 ‘동기회 행사준비 때마다 요긴하게 응용할 수 있는 정보’라는 좋은 반응을 받았다.



사실 초유의 가족동반 경부활동아유회(6월4~5일)를 가진 제41회 동문·가족들의 다정한 모습들.

제15회 동기회관운영위 개최

제15회는 지난 5월17일 오후 6

시 부산 중구 부평동 골든 오피스텔 6층 동기회관에서 올해 첫

동기회관운영위원회를 개최, 하반기 운영방향을 논의했다.

정창환 운영위원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운영위원회 층에서 회장과 김학현 등 위원 8명, 동기회 집행부 층에서 김경일 회장과 김창구·최원수 총무, 업자별로 신흥규 동문 포함 5명 등 모두 17명이 참석했다.

‘피보다 진한 우정’이 투병 친구 ‘재기의 등불’로

제31회 용마들, 당뇨로 한쪽 다리 잃은 동기생 살리려 치료비 모금

“병마와 싸우고 있는 친구를 살리자!”

제31회 홈페이지에 최근 같은 호소가 회장단과 허일현 동문 등의 명의로 뜨자 삽시간에 “나도 치료비를 보태겠다”며 성금을 페척하는 ‘피보다 진한 동기애’가 넘쳤다.

아름답고 희망 가득한 삶을 되찾기 위해 ‘절망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주인공은 이상열 동문.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에서 촉망받고 있던 그는

어느날 당뇨병이 악화돼 이젠 한쪽 다리를 잃은 채 투병 중이다.

그러나 병실(봉생병원·부산 동구 좌천동)은 동기생들을 비

회장단 등 앞장서
700만 원 모아 전달

롯해 선·후배 동문, 옛 직장의 동료·상사, 친척·친지 등 의 쾌유를 비는 문병인들로 ‘정겨운 소란’을 겪고 있다.

이번에 동기생들이 짊은 기

간 중 1차로 쾌척한 치료비 지원 성금 규모는 자그만치 700여만 원. 이는 회장단과 특히 허일현 동문(국민은행 부산지점 차장) 등이 발벗고 나서서 모금한 결과이다.

이 동문은 지난 6월 중순 동기회 회장단으로부터 성금을 받고 “남 회장을 비롯한 동기생들과 주위의 여러분들이 배풀어준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으며, 반드시 재기하여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가족동반 산상운동회 열광

제31회, 어린이대공원~남문 산행·금정산장 단합회

족구시합 우승 북부회 쟁취
최다참가상 이성식 가족(5명)

지난 5월29일 제31회동기회 가족동반 산행대회 겸 운동회가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금정산에서 열려 신바람을 일으켰다.

남철우 회장이 축감독을 맡은 이날 행사는 ‘오전 산행대회’와 ‘오후 족구대회·노래자랑’으로 펼쳐졌다.

이날 오전 10시 어린이대공원 앞에 집결한 일행은 남 회장의 간결한 환영사에 이어 순영태 고문이 협찬한 열음첨질용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산행에 나섰다. 코스는 수원지 윗길~산림욕장~만남의 광장~구민의 숲~만덕고개~남문~금정산장(오후 운동회 행사장).

김성규 동문이 산행대장을 맡아 선두에 나섰고 후미는 정정남 수석부회장과 안중수 직전총무가 맡아 대열을 다스렸다. 산행 중 땀을 식힐 겸 사명대사 기념

탑 앞에서 단체사진을 촬영했고, 아파들은 깔딱고개를 지나 케이블카 종점쪽으로, 프로들은 먹결이촌~남문 쪽으로 길을 잡았다.



제31회 동문·가족들이 지난 5월 29일 부산 금정산 산행 후 남문 아래 있는 금정산장에서 열린 단합회에서 정당을 나누고 있다.

오후 1시30분께 일행은 낙오자 한 명 없이 금정산장에서 고단한 발품을 멈췄고, 남 회장의 격려사가 끝나기 무섭게 남녀노소 ‘체면몰수’ 속에 허기진 배를 채우기 시작했다. 삽시간에 오리 17마리와 닭백숙 13마리, 묵 20여 대접이 온 데 간 데 없어졌다.

식사 후에는 운동회(족구대회)

모두 동기회발전기금으로 쾌척해 다시 한 번 박수를 받았다.

홍성수 동문의 사회(동기회 행사 단골 MC)로 진행된 노래자랑에서 잉꼬부부상은 박경수 동문 부부, 가창상은 조현우 동문 부부, 최다가족참가상은 이성식 동문 가족(부인·자녀 3명)각각 받았다.

원에 짐을 풀고 곧바로 생선회 등 갖가지 요리로 차려진 저녁식사를 즐겼으며, 이어 구내 노래방(자체 운영)에서 단합회를 열었다.

둘째날인 19일에는 혜규판 동문이 직접 차를 몰고 안내하는 대로 후포항에 들러 어부들의 오징어 잡는 모습과 갖가지 해산물 판매장 등을 둘러보았고, 월송정·성류동굴·망양정·촛대바위를 관광한 후 백암온천에서 피로를 풀었다.

대구·경북 용마가족 관동팔경 관광단합회

만나고 또 만나서 화합의 헛불을 더욱 밝히자!

지난 6월 18~19일, 아름다운 관동팔경의 숨결이 곳곳에서 숨쉬고 있는 경북을 무대로 펼쳐진 대구·경북지역동창회 아유회는 뜨거운 우정이 분출된 아름다운 만남이었다.

허경희 회장(16회·우성산업 회장)이 주재한 이번 행사에서 역내 동문·가족 30여 명은 별미 시식과 궁판한마당, 포구의 어로 풍경과 특산물 견학, 명승지 관광 등으로 친교와 견문을 넓혔다.

첫째날인 18일 오후 일행은 이곳 후포면 삼성산업(회장 혜규판·20회) 연수

Rococo Wedding
로코코 웨딩

광복동 로코코 웨딩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당신의 모습을 그려 드립니다.’

- 고품격 토탈웨딩 전문
- 드레스, 연주복, 파티복 맞춤·대여
- 오랜 전통과 축적된 노하우
- 직영 스튜디오 운영 (웨딩·가족·베이비)
- 특급호텔 (교회·성당·회관) 우대

※ 하절기 특별 기획 및 동문·동문 가족 우대

부산호텔직영

www.rococobusan.co.kr

남봉조
김진영(29회)



로코코웨딩: 부산시 중구 광복동 1가 52-1
Tel. 051-244-5142 · 016-651-1671

한이현(16회)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한이현 동문(16회·사진)은 지난 6월20일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에 취임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행정고시(7회)에 합격한 한 동문은 재정경제부 예산실장·차관을 거쳐 김영삼(3회·본부 고문) 대통령이 이끄는 문민정부시절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발탁돼 금융설명제 등 다양한 경제정책을 창출, 지휘했다. 이후 국회의원(부산 강서·북구을)에 당선돼 정계에 진출, 경제 전문인으로서의 역량을 십이분 발휘했다.

박기욱(23회)
열린우리당 부산 정책위원장



부산시의회 2선 의원인 박기욱 동문(23회·본부 부회장·열린우리당·사진)은 지난 6월28일 오후 열린 부산시당 제18차 상무위원회에서 정책위원장에 선임됐다. 고려대 정외과를 졸업한 박 동문은 열린우리당 부산 남구당원협의회장과 전국음식업중앙회 부산시지회장 등을 맡고 있다.

제26회 세동문 '영진 경사'

관계(官界)에서 고위공직자로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제26회 세동문이 최근 나란히 영진해 본인과 동기회는 물론 동창사회에 경사를 안겨주었다. 주인공은 남인희 김석동 오성의 동문.

남인희(26회)
건설교통부 차관보



남인희 동문(사진)은 최근 건설교통부 정책홍보관리실장 재임 중 차관보로 발탁됐다. 남 동문은 서울대와 경희대 대학원을 졸업, 기술고시(13회)에 합격한 후 건설교통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건설교통부 도로국장 등을 역임했다.

노상현(16회)
가곡 작곡 발표회 열어



외과의사인 노상현 동문(16회·청십자의원장·사진)은 지난 6월 24일 오후 7시30분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40여년에 걸친 음악에의 열정을 '노상현 가곡 작곡 발표회-초혼(招魂)'으로 결정(結晶)시켰다. 부산대 의대를 졸업한 노동문은 이날 가곡 발표회를 통해 김소월 시 '진달래꽃' 등을 직접 노래(바리톤)했고, 초중고동기동창인 정광동문(전 영남대학교 교수·테너) 등이 우정출연해 발표회를 빛내주었다.

김석동(23회)
재정경제부 차관보



김석동 동문(사진)은 최근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재임 중 차관보로 승진했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행정고시(23회)에 합격한 김동문은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재경부 금융정책국장 등을 지냈다.

오성의(26회)
열린우리당 수석자문위원



오성의 동문(사진)은 기획예산처 홍보관리관 재임 중 열린우리당 정책위 수석자문위원으로 발탁, 국회에 파견됐다.

고려대 통계학과를 졸업한 후 행정고시(20회)에 합격한 오동문은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수·기획예산처 국장 등을 역임했다.

유태준(28회)
신용보증기금 충청본부장



유태준 동문(28회·사진)은 최근 신용보증기금 충청지역본부장으로 영진했다.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유통문은 신보에 입사, 본부 보증심사팀장·부산중앙지점장·본부 신용보증부장 등을 역임했다.

**화합 충천… 묘기 백출… 폭소 만발
울산·마-창회 체육대회 열광**

울산과 마산-창원지역 용마가족들의 빅 이벤트인 체육대회가 각각 친교·협동·화합을 주제로 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열려 신록의 계절을 한껏 푸르게 했다.

울산지역동창회
축구·발야구 등 용호상박전
노래자랑 등 가족오락회도



울산지역동창회의 용마가족 체육대회 기념식 (사진 위)과 마산-창원지역동창회 가족사랑 체육대회의 동문·가족 혼성 줄넘기 경기 (사진 아래).

울산지역동창회는 지난 5월 29일 울산동중학교에서 가족오락회를 겸한 체육대회를 개최, 레포츠문화 확산의 가치를 드높였다.

박홍조 회장(22회·본부 부회장·삼우교통 대표이사)이 주재한 이날 행사는 지역회 고문단·회장단을 비롯한 동문·가족 150여 명이 흥-짝수기로 나눠 치열한 응원전 속에 용호상박전을 펼쳤다. 특히 본부동창회 안강태 회장(11회·대선조선 대표이사)

을 위시해 김병수 국장 겸 총무부장(22회), 박호문 재경 사무국장(15회), 이희영 부산여고 울산지역동창회장, 오덕춘 부산고울산지역동창회 수석부회장을 포함한 10여 명이 내빈으로 참석해 격려했다.

박홍조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올해 행사도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역량결집을 과시하리라 믿는다"며 "가을에는 가족동반 아유회를 열어 끈끈한 정을 지속시키겠다"고 말했다.

안강태 본부 회장은 격려사에서 "일사불란한 결집력을 발휘하여 우정과 화합을 확산시키는 본 대회가 동창회 발전의 축진제로 승화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권기택 사무국장(28회)의 충감

정준수 본부 용마산악회장
하프마라톤대회 완주 괘거

본부 용마산악회
회장인 정준수 동문(15회·부산대 교수)은 지난 5월 22일 부산 대포에서 열린 부산하프마라톤대회에 참가, 무더운 날씨에도 21.0975km 코스를 2시간44분 만에 완주해 노익장을 과시했다.

종목으로 격전을 벌인 흥-짝수기가 사이좋게 공동우승을 했다. 이번 대회 최다참가상은 제33회 동기회가 차지했다. MVP는 최민석(21회)·우수선수상은 유성렬(32회)·감투상은 임영수 동문(30회)이, 비둘기상은 황중부 동문(17회) 부부·잉꼬상은 곽기영 동문(33회) 부부 등이 각각 받았다.

여환부 회장(21회·대주건설 회장)이 주재한 이날 행사는 지역회 고문단·자문단·회장단을 비롯한 역내 동문·가족 160여 명이 열광의 응원전을 펼치며 기량을 뽐냈다. 특히 내빈으로 본부동창회 안강태(11회·대선조선 대표이사)회장 및 황유명(29회)부총무, 박호문(15회) 재경 사무국장 등 다수가 참석해 행사를 격려했다.

여환부 마-창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27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본 행사는 우리 역내 용마가족들의 자존심인 만큼 더욱 계승·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안강태 본부 회장은 격려사에서 "마산-창원지역동창회의 가족사랑체육대회는 다른 학교 동창회에서 매우 부러워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동창회 도약의 활력소가 되게끔 더욱 내실화시키자"고 말했다.

한편 김영삼(3회·본부 고문) 전 대통령은 축하메시지를, 국회 의원인 김정부(13회)·권영길(15회)·이근식(19회)·최철국·동문(25회)과 공민배(27회·한국지적공사 사장) 하영제·동문(27회·남해군수)은 축전을, 재경·진주·거제지역동창회와 KBC21회 등은 화환을 보내와 축하했다. 이날 행사의 주요 프로그램은 마산MBC(TV)에서 30일 오후 7시 50분부터 10분간 방영됐다.

'글마을'에의 초대



용마가족 여러분을 회보의 집필자로 모십니다.
시·수필·여행관광기·취미생활수기·학창시절 추억담·시평·제안 등 뛰어든 자료 사진과 함께 보내주십시오.

<보낼 곳> 경남중고등학교동창회 회보편집위원회
부산시 중구 부평동4가 52-3 골든0/T 411호
TEL : (051)245-7551~3 FAX : (051)245-7550

발명특허 제0202834호



탈모예방·발모촉진
골드유모 유모화장품 영남지사장 송근호(20회)
Tel. 051-315-0502 / 011-9236-3267

**탈
모
안
심**

본부 기별대항 용마등산대회 대신 동기회별 연간참가실적 시상제로

용마산악회 운영수정안 통과… 2년마다 정기총회

올해 정기산행 일정

20차 : 5월 8일 왕산~필봉산
21차 : 9월 11일 내연산에서
22차 : 11월 27일 영남알프스

본부 용마산악회 집행부가 2년마다 정기총회를 열어 임원 선출과 함께 구성된다. 특히 동창회장기 기별대항 용마등산대회는 올해부터 폐지하고 대신 매년 납회산행 시 각 동기회별 연간참가실적을 평가해 시상하는 행사를 대체키로 했다.

용마산악회는 지난 3월 13일 전북 순창 근교 강천산 산행대회

후 정준수 회장(15회) 주재로 각 동기회별 대표자회의를 개최, 이 같이 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정기총회 2년마다 개최 △동기회별 대표자회의는 정기총회 후 개최 △동창회장기 기별대항 용마등산대회는 올해부터 폐지한다 등의 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회의는 제20차 정기산행 대회(올해 2차)는 오는 5월 8일 왕산(923m)~필봉산(848m-경남 산청군), 제21차는 오는 9월 11일 내연산(710m-경북 포항시~영덕군), 제22차는 오는 11월 27일 영남알프스에서 각각 개최하는 계획안을 승인했다.



지리산 천왕봉에 용마깃발 꽂아

'29BASE CAMP' 11명 3박4일 등반

'29BASE CAMP'(제29회 산우 모임) 지리산 등반대회가 지난 6월 4~6일 2박3일 일정으로 거림골~세석고원~촛대봉~연하봉~장터목~천왕봉~중봉~치밭목 코스에서 펼쳐졌다.

이번 등반에는 부산에서 박기찬(산악회장) 김영훈(총무) 김정규(산행대장) 이충원 김연래 임광열 이공철 등문, 울산에서 김인렬 등문, 서울에서 이범의 서봉교 정방호 등 모두 11명의 베테랑(?)들이 참가했다.(권우진 등문은 4일 한밤중에 나타나 특전금만 내고 업무관계로 귀가).

첫째날 4일, 거림의 민박집에 도착한 일행 중 9명은 ('젊은 오빠'로 불리는 종주조 이충원 임광렬은 벽소령서 1박)은 짐을 풀자마자 '술통진치'를 벌였다.

둘째날 5일, 정오께 약간 정신을 차린 거림조는 성심자를 출발, 벽소령조와 세석에서 재회해 라면과 주먹밥으로 속을 풀었고, 장터목에 도착해 염소·오리고기

를 안주로 소주파티를 벌였다.

셋째날 6일, 천왕봉 정상을 밟은 일행은 용마깃발을 꽂고 '3대째 덕을 쌓아야만 볼 수 있다'는 장엄한 일출을 맞이했다. 이어 하산을 재촉, 오후 3시께 산행종점인 웃새재 마을의 조개골산장에서 대장정을 마감했다.

가족과 함께 경주 남산 탈 없이 즐기

제28회 봄철 등산대회

제28회 동기회 가족동반 봄철 등산대회가 경주 남산(494m)에서 강현안 동기회장과 이원철 산우회장 등 37명(부인 13명 포함)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산우회가 주관한 이날 산행은 울산에서 최성덕(지역회장) 권기택 이승열(김훈자) 등문도 참가해 반가움이 더했고, 목적산을 미리

경열회 '7월 수업' 유급 속출

6월 골프대회 우승 조상진
김시열·이민섭 두차례 경비 폐적

7월 20일께 장마가 물려선다는 기상예보에 따라 경열회(제10회 재경회·회장 성온) 친목회별 '7월 수업'은 모두 9개 반 중 강북화요회(회장 강재환·5월 오전 12시 30분 평래목)와 바둑모임 등 수회(회장 김상태·23일 오전 11시 회장 사무실)만이 출석, '수(秀)'를 받았을 뿐 나머지 사니조아·안산·분당·정우·일금·강남·경북회 등 7개 반은 유급(?)됐다.

한편 '6월수업' 일정은 △강남회(회장 김해룡·28일 서초 기왓집순두부 18명·스폰서 김시열) △사니조아(회장 이계창·26일 수락산 2명-스폰서 회장·4일 관악산 7명-각자) △동수회(회장 김상태·25일 회장 사무실 7명) △일금회(회장 최장훈·24일 일산미라도 7명-스폰서 김시열) △경북회(회장 이정배·23일 자유CC 14명·우승 조상진·메달리스트 김영덕·준우승 이승락·3위 이민섭·롱기스트 서진홍·니어리스트 변완수·행운상 김상태) △분당회(회장 정상수·18일 일식점 아시코 9명-스폰서 각자) △정우회(회장 최형백·16일 평촌공원 테니스코트) △안산회(회장 박칠민·14일 산본 순두부마을 10명-스폰서 이민섭) △강북회(회장 강재환·7일 평래목 24명·스폰서 이민섭) 등 순이다.

〈바로 잡습니다〉 본보 제353호(2005년 5월 19일) 4면 '재경열회 5월 수업…' 제목의 기사 중 '회장 차동렬'을 '회장 성온'으로 바로잡습니다.

제14회 동기회 임원명단

고문

문운용 손광웅 신길송 강주신
박병선 윤영현 류총일 박효건
이길미 정시영 노수덕 한규환
이종민 김영대

회장

김용호

부회장

김재도 김영식 김의웅 김이길
문성필 반미태 양정우 유정호

이광언 이승오 정현구 황원규

감사
김철언 조영봉

이사

공칠성 구자신 김영우 김화옥
강호일 김형수 김홍관 박문남
박순일 박중철 박종문 박삼현
박춘제 박용화 박현목 신현호
염상주 윤용남 이동식 이명재
이수남 이훈일 정상진 정삼영

조규태 최경렬 최성웅 하광진
황준성

사무국장
박청홍

〈각 서클〉

1·4회 회장 : 박병선
경사회 회장 : 박용화
경조회 회장 : 한규환
등대회 회장 : 이재인
등산회 회장 : 김재도

낙선회 회장 : 김병철

의약회 회장 : 윤영현

보수회 회장 : 박춘제

총무 : 조영봉

K.B.C. 회장 : 박병선

총무 : 강원수

6·1·4 회장 : 김화옥

〈각 지역회〉

재경동기회
회장 : 김영치
총무 : 이광우

거제지역동창회

고문 : 손광웅 윤용남 조규태

마창지역동창회

고문 : 김관

울산지역동기회

회장 : 강호일
총무 : 전부길

〈동기회 사무실〉

부산시 중구 대창동 1가 23-2
동남빌딩 502호

(051) 462-6114



제35회 동문들이 계룡산국립공원 내 동화산장에서 비엔날레축제를 치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학산장서 DHN35 비엔날레축제

제35회 전국에서 100여명 모여 짐음의끼 발산

DHN(독한님)35의 전국 대표 100여명이 계룡산국립공원 내 동학산장을 완전 점령(?), 질풍노도의 대회전을 펼쳤다.

지난 4월 2일 저녁 D-Day 동학산장은 부산 서울 대전 울산 마산 청원 진해 김해 진주 하동 광양 등에서 선발돼 온 제35회 초초맹장(?)들의 기고민장한 허풍들로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이번 행사는 3일까지 1박하는 일정으로 열렸다.

조장부터 허풍대회(?) 벌여

김민수 본부동기회장은 2일 오후 6시 30분 행사장의 세미나실에서 열린 제1부 기념식을 주제, 인사말을 통해 "우리들 비엔날레축제는 '동기를 찾는 순례, 추억을 되새기는 시간여행'으로 각자의 기슴마다 각인되는 뜻 깊은 행사"라며 "짐음을 담보하여 한 가닥 구김살도 넘기지 말고 청춘을 구가하자"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유공자 표창에서 훙 커밍데이행사와 지역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10명에게 순금배지를 수여했다.

손수범 총무의 행사일정 소개에 이어 벌어진 만찬은 동학산장이 마련한 갖가지 음식들이 다채롭고 맛깔스러웠으나 부산의 싱싱하고 달착지근한 생선회와 김해의 토종 흑돼지의 구수한 수육 등이 순식간에 설험(?)됐다.

부산 회·김해 흑돈 수육 인기

어느 것 하나 별미가 아닐 수 없는 풍성한 안주를 탐닉하며 펼쳐진 국내의 향기 짙은 주류평평회는 끝내 열정의 심지에 불을 지펴 지역 및 반별 대항 '삼바 페스티벌'로 확산시켰다.

'꽃을 든 남자'를 비롯한 갖가지 노래와 장기자랑, 저마다 서너 달 걸려

개발했다는 '배꼽 빼지게 하는' 춤들과 '요즘 기준으로 하면 성희통성에 걸릴 수도 있는' 버전도 가세한 술한 별명들의 콘테스트, 요절복통하는 끝 글짜 이어가기(예: 서울서 '계란'하니 단번에 부산서 '란닝구'로 위기모면), 일명 '다모토리'로 통하는 맥줏잔에 소주 넘치게 부어 단숨에 마시기 등 전략·전술이 잇달아 맹위를 떨쳤다. 그리고 '그 절난 표정들'로 단체사진을 촬영했다. 어디든 이런 행사는 꼭 있는 일이지만, 한 방 '찰칵'하려는데 정윤성(본부동기회 부회장·전 동기회장) 동문을 선두로 여기서 한 명, 저기서 한 명이 불쑥불쑥 뛰어 드는 바람에 또 찍고 또 찍는 게 열 차례나 돼 얼을 받게 했다.

'주류평평회'로 아수라장

일행은 행사 이름인 3일 아침 늦잠 끝에 유성 온천에 들러 온천욕을 한 후 점심식사 자리에서 해단식을 치르고 헤어졌다.

이번 행사에서 집행부는 참석자 전원에게 동기회 로고가 새겨진 티셔츠를, 대전지역회는 열쇠고리를 각각 선물했다.

손수범 총무의 행사일정 소개에 이어 벌어진 만찬은 동학산장이 마련한 갖가지 음식들이 다채롭고 맛깔스러웠으나 부산의 싱싱하고 달착지근한 생선회와 김해의 토종 흑돼지의 구수한 수육 등이 순식간에 설험(?)됐다.

▷권오율=던롭 트레이닝복 5점 ▷권종석=삼성전자 MP3 ▷변상돈=금강제화 상품권 ▷김민수=경고록 ▷장병주=파라다이스호텔 상품권 ▷부산사모골프회 회장(김기철)=골프공 6박스

▷박창석=나이키 스포츠화 상품권 2장 ▷김홍근=트레스터(등산화) 상품권 ▷박윤섭=피톤차드 스프레이 10점 ▷이재성=제주관광호텔 숙박권 ▷박희찬=침구류 1점 · 나누리아 스프레이 2점 · 금비누 1상자 · 게르마늄비누 1상자

'친구 많아야 장수' 화두 재경경팔회 모임 적극화

재경경팔회(회장 이규환) 동문들의 요즘 화두는 '친구 많아야 장수한다'이다. 그래서인지 동기회 집행부부터가 어느 때와는 딴판으로 친구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신선한 이벤트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친목회별로는 서로 많이 모이기 경합을 벌이는가 하면 진솔한 대화와 흥미를 없는 농담 등으로 '우정의 활력소'가 샐솟게 하고 있다.

팔선회, 8월 6일 여름수답

비록 모임 팔선회(회장 이유환)는 회원들 사정으로 7월 정례회를 열지 못했고, 8월에는 6일 오후 1시30분 한일기원(지하철 2호선 서초역 1번 출구에서 50m거리)에서 대국을 벌인다.

산우회, '금요산행'으로 변경

산우회(회장 김영철)는 지난 6월 17일

부터 그간 매주 토요일에 하던 산행을 '매주 금요일 산행'으로 변경했다.

첫 금요일 산행이었던 17일은 11명이 관악산을 올랐다.

지하철은 출근인파로 봄렸으나 산은 조용해 쾌적함을 만끽했다.

24일에는 11명이 32°C 무더위를 참으며 북한산 득바위 코스를 정복했다. 하산길의 얼음을 같은 촉매주 한 잔은 더 위와 세상사를 함께 씻어냈다.

앞서 토요일 산행이었던 11일에는 수락산(8명), 4일에는 도봉산(13명)을 등정했다. 하산길에는 김호석 동문이 생맥주파티를 주관해 즐거움이 배가 되었다.

김호석·정은희 골프 우승

골프 모임 잔디회(회장 배주원)는 지난 7월 7일 안성CC에서 제140회 월례회(16명 참석)를 개최했다. △남자부=우승 김호석(89타·E)·준우승 윤태영·3등 김영길·니어리스트상 노재복·행운상 조윤제 동문 △여자부=우승 정은희 씨.



일오후 3-5 경부반창회 부산서 '덩더쿵'

부산사모회서 서울 친구들 1박2일 일정 초청

제15회동기회 3학년5반 경부합동반창회가 지난 5월 21~22일 국민관광지 부산에서 열렸다.

부산사모회(회장 손부홍)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모두 23명(부산=김경일 동기회장 등 15명·서울=허광길 동기회장·강부부

삼팔회장 등 8명)이 참석했다.

〈첫째날 21일 오후〉 일행은 해운대 미포선착장에서 관광유람선에 승선, 오륙도~광안대교~태종대 등 해안관광을 한 후 민락동 수변공원 옆 청도회집에서 전야제를 즐겼다.



제24회 후라 회(야구 모임)
제29차 경부 야구대회(5월 14일)■ LG 구리구장에서 치른 부산·서울 선수들이 우정의 포즈를 취하고 있다.

부산사모회 '8회초 기적의 한방'

제24회 후라회 29차 경부야구대회 관전기 김명배

지난 5월 14일 오후 2시30분 부산발→서울행 KTX 입구, 후라회(제24회 야구단) 29차 경부교전에 출전한 선수 16명 중 13명(장민재 태창업 황성동 최우림 김경남 김인철 한예식 김도현 김명배 서정대 강동우 강종문 배재일)이 소풍기는 학생들인 양 잔뜩 홍분하고 있다. 노상우 김학주 이방우 동문은 노동문이 서울출장으로 차를 몰고가는 바람에 함께 먼저 떠났다.

오후 3시 배를 탄 일행은 부산으로 올 때 파고가 3m이상이어서 몇몇 부인들과 민병현 님 부부 등이 혼쭐이 났으나, 집행부의 멀미약 공급으로 무사히 부

제100차 산행 기념으로 일본 대마도 시리타케 계산을 통정한 제33회 동문·가족들이 '삼삼산우회 대마도 산행기념'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객석 가운데 위치한 2명씩 마주보게 있는 동반석 2개(8명분)을 비롯하여 자리를 잡고 앉았다. 일단 캠막주 하나씩 들고 여행을 즐기려는데 여객전무가 나타나 어름장(?)을 놓는다. 몇 년 전 새미을 시절 하고는 너무 달라 실망의 연속. '이런 좋은 시간을 입 닫고 조용히 가야 한다니...', 허망하지만 어쩌랴.'

근데 KTX는 식당칸이 있으니 설상가상이다. 짬짬이 정차역마다 니코틴 리필하러 다니는 친구들이 너무 안쓰럽다. 입을 참지 못해 그 후로도 더러 RED CARD를 받았다.

서울역, 김구대 변정규가 마중나왔는데, 김의 차로 가방들을 먼저 보내고 변정규의 안내로 대절하다시피한 406번 버스를 타고 거리 풍경을 눈요기한다. 기차칸에서 참았던 이바구들로 자갈치시장 같다.

포이동의 중국집 띵호아에서 서울 친구들이 배운 대접을 잘 받고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여장을 풀었다. 맥주와 양주 시합(?)이 늦게 도착한 안상수 수석의 '심판' 속에 새벽까지 이어졌다.

아침 일찍 사우나와 설령탕으로 몸을 추스린 후 천연잔디로 가꾸어진 LG 구리구장으로 갔다. "주위에 좋은 친구를 둔 우리는 행운아들이라고 입을 모았다.

부산 선공으로 격전이 벌어졌다. 활발한 타격전 끝에 부산팀은 7회까지 10-12로 지고있다가 8회초 타자일순하며 맹공을 펴부어 7득점, 기적의 역전극을 연

'대마도는 우리 땅' 역사 흔적 곳곳에

삼삼회 100차 산행기념 대마도 원정동반을 다녀와서

부인석

신화영(백수현 동문 부인)

제33회동기회 제100차 산행기념 등반대회가 지난 5월 28~29일 일본 대마도에서 펼쳐졌다.

김법영 님이 총지휘를 하고 김종만 님이 산행대장을 맡은 이번 원정산행에는 남자 14명과 여자 10명이 참여, 심신을 단련하고 해외견문을 넓혔다.

〈첫째날〉 28일 오전 10시 30분 부산 국제여객선 터미널에서 씨플라워호를 탄 일행은 오후 1시 30분 일본 대마도의 이즈하라항에 도착했다.

현지 가이드 팀의 친절한 마중과 그들이 준비한 '삼삼산우회 대마도 원정산행 환영'이라고 쓰여진 플래카드를 배경으로 포즈를 취한 후 곧바로 시라타케산(白嶽山-559m)을 등정했다. 정상이 흰 바위로 덮여 있는 이곳은 옛날 수행자들이 '대마도의 영산'이라며 도를 닦던 곳.

4시간 넘게 산에서 땀을 뻘뻘 흘린 일행(산행 1등 팀은 백수현·신화영 커플)은 각종 해산물

요리로 유명한 '탑'에서 회정식으로 대마도에서의 첫 식사(만찬)를 했다. 잠은 '대마도 죄고'라는 통나무호텔에서 잤다. 밤 9시30분께 동문·가족 전원은 김법영 님 등이 투숙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2층 C동을 아지트로 삼아 이곳에 집결, 무려 2시간 동안 온갖 잡사(雜事)를 화제로 입방아시합(?)을 벌였다. MVP는 최웅남 님과 오미옥(이윤조 님 부인)씨가 차지했다.

〈둘째날〉 29일 오전 8시30분 대



마도 관광에 나선 일행은 일-러전쟁 중 일본 해군이 이곳 아소만에서 발틱 함대를 격파시킨 '해전(海戰) 승리 100주년 기념 퍼레이드'를 볼 수 있었다.

이어 아소만 해전의 격전지 만

산항에 돌아왔다(18:10).

부두에는 백양산운 님과 하일라투어의 최자현 님 등이 마중나와 모두들 "반갑다"며 호들갑을 떨었다. 낙지볶음으로 저녁식사를 하고 헤어졌다(2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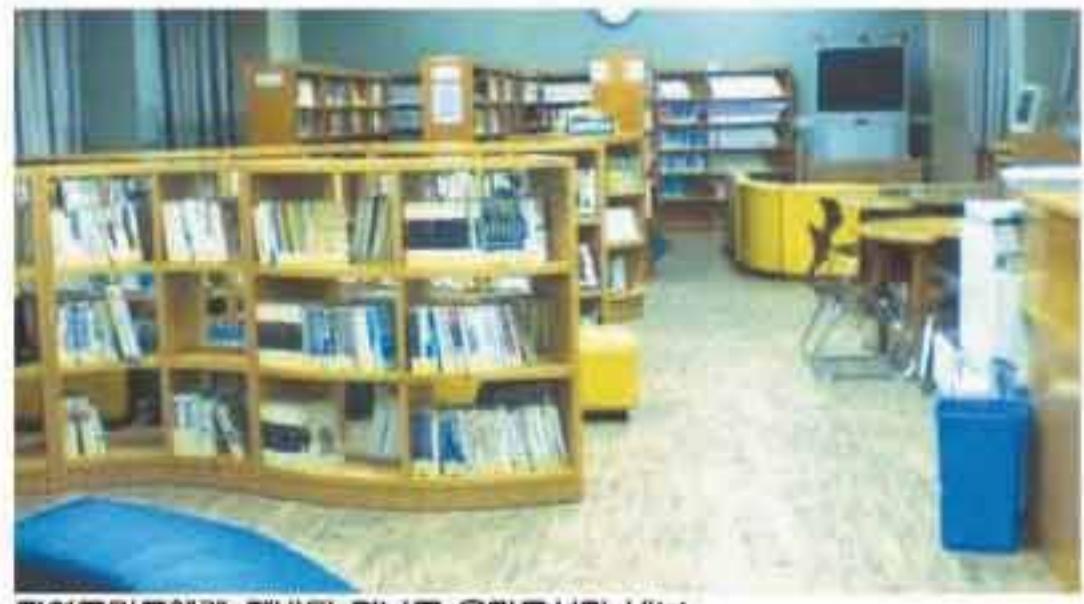
'용마의 날' 부활시켜 울산회, 지속화 역량결집

울산지역동창회는 지난 5월 16일 오후 울산역 앞 황태미을사회(30회 정진국 동문 운영) 역내 동문들의 사랑방인 '용마의 날' 5월 정례회를 개최했다.

박홍조 회장(22회·본부 부회장·삼우교통 대표)이 주재한 이날 모임은 김우성 동문(8회·울산대 명예교수) 등 20여 명이 참석, 한동안 중단되었다가 올해 초 부활된 이 만남을 지속시킬 것을 다짐했다.

동문들은 동창회 행사의 내실화와 유대강화 문제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경남중 용마도서관 주민들에 개방



지역주민들에게 개방된 경남중 용마도서관 내부

경남중(교장 김철곤·16회)은 지난 6월 초순부터 작년 10월 본관 1층에 책 1만여 권과 정보화 시설 등을 구축한 현대식 용마도서관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 화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은 용마도서관에서 평일 경우 학생들이

수업을 끝낸 오후 3~5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오후 1시까지 도서 열람·인터넷 검색·DVD 시청 등을 할 수 있다.

특히 학교측은 주민들에게 도서 대출(회원 등록 필수)도 하고 있는데, 이 경우 1인당 2권씩 1주일 동안 빌릴 수 있다.

박찬호 부산 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전야제(사진)는 손부홍 부산 사모회장 환영사·허광길 재경회장 답사·김경일 동기회장 축사, 미국의 마동명·손빈소 동문이 보내온 특찬금 60만 원(오봉석 동문이 미국 출장 중 인수)과 김경일 동기회장의 행사특찬금 및 동기회 특별지원금 전달식, 축배와 만찬을 겸한 여홍 등 순으로 학창시절의 추억 속에 흠뻑 빠졌다.

〈둘째날 22일〉 일행은 아침 온천욕에 이어 해장을 겸한 아침식사와 이별주를 나눴고, 공식행사는 부산역에서 오후 1시40분 출발한 서울 친구들을 전송한 것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행사비 등 협찬자〉

△손부홍=50만 원 △최광웅
박찬호=각 30만 원 △이종명 김종한 김웅세=각 10만 원 △고태언 김판열=각 5만 원 △동기회=20만 원 △김경일=20만 원 △재경 삼오회=60만 원 △허광길·강부부=각 양주 1병.

이번 행사를 위해 수고한 서울 친구들 고맙고, 특히 권영기 회장과 김구대 이종구 신병식 등이 뒤치닥거리한다고 고생 많았다. 모두 행운 누리기를 빈다.

제6회

鄭兄錫=5월19일 부산의료원에서 별세. 051-751-6066

제8회

金京潤=5월9일 별세
金守敦=(자택 이사)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657번지 우정산 현대 흠타운 113동 602호. 02-3662-1250
金程坤=(자택 이사)경기도 용인 시 기흥읍 지곡리 써니밸리2차 113동 1901호. 031-286-6142
金鐘植=부산 연제구 연산9동 57-95. 051-753-6968
成亥源=5월25일 부인 별세

제10회

高光守=(자택 이사)경북 울진군 서면 삼근리 721-8번지. 017-568-5877
金時烈=6월11일 서울 은행연합 회관에서 차남 상연군 결혼
徐鳳源=(자택 이사)부산시 북구 화명동 벽산아파트 103동 106호. 051-361-2937
尹羽成=(직장 변경)동원특허법률사무소. 02-521-4111
李允洙=(직장 변경)NYK LINE(KOREA) CO. LTD. 고문. 서울 연세재단 세브란스빌딩 22층. 02-398-1190
全圭三=7월3일 건국대 동문회관 웨딩홀에서 장녀 지원양 결혼. (자택 이사)경기도 광주시 삼동 119번지 우남페스트빌 103동 904호. 031-764-4756
趙守榮=(자택 이사)경기도 용인 시 풍덕동 한성아파트 105동 906호. 031-891-4223
秋基錫=GREGORY K. CHOO. Chairman San Francisco International Airport San Francisco, CA 94125-0628. (Tel)650-877-0292
故 秋月武=6월19일 서울 외교회 관 삼녀 지화양 결혼

제13회

姜像熙=7월13일 장모 별세. 천안 납골당에 안장. (자택)인천 시 부평구 산곡동 307번지 현대아파트 112동 1303호. 032-502-1251 · 011-788-1791
金壯雄=6월16일 미국에서 딸 결혼
禹永燮=경주 산내에서 대현별장가든 개업. 054-751-5977
姜鍾源=(자택 이사)부산시 해운

대구 반여2동 1291-58번지 금원빌라 302호

金武助=6월4일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딸 결혼

金相漢=(자택 이사)부산시 수영구 남천2동 148번지 삼익비치아파트 105동 508호

金龍吉=(자택 이사)부산시 수영구 민락동 1-2번지 한백리브류 201호

金鶴大=7월9일 서울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아들 결혼

李根模=6월27일 서울 공항터미널예식장에서 차남 재호군 결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21-2 현대판테온 1016호. 011-221-4463

李相三=7월2일 롯데기원 개원. 부산시 북구 화명2동 신호타워 904호

제14회

姜夏伊=(주)롯데제과 양산공장 관리이사. 5월17일 별세. 경북 영천 호국용사묘지에 안장

金龍秀=6월4일 부산예식장에서 차남 결혼

朴三現=6월12일 부산 크라운호텔 예식부에서 차남 진영군 결혼

徐富根=미국에서 귀국. 부산의료원 호흡기내과과장 취임

吳鍾哲=6월17일 서울 리츠칼튼 호텔 예식장에서 차남 현준군 결혼

李敬雨=5월28일 서울 공항터미널 예식장에서 차남 상민군 결혼.

李明帝=부산대학교 상경대학 교수. (자택 이사)부산시 수영구 광안2동 삼정그리코아 101동 405호. 051-751-6292 · 011-668-3292

장성기=5월23일 별세. 경기 광탄 천주교묘원에 안장.

故 韓光潤=5월27일 서울 GS타워 아모리스홀에서 삼남 창민군 결혼

제15회

金茂吉=6월11일 서울 새천년웨딩홀에서 차남 동우군 결혼

朴英吉=5월5일 부산 하모니웨딩 타운에서 장녀 정민양 결혼

李恩洙=우즈베키스탄 체류중 일시 귀국. 6월11일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장남 정민군 결혼.

(자택)051-245-7377 · 011-867-7377 · (우즈베키스탄)001-998-71-71-30011

(직장)051-620-6354 · 011-9517-8241

제24회

金明鍾=SK건설 플랜트 사업본부장 부사장 승진

金龍植=동부건설 부사장 취임

金仁久=서울대 경영대 한전경영자과정 입교. 내년 1월까지 서울에서 교육. 010-3050-2390. 4월28일 모친 별세

金學柱=3월4일 용마당구클럽 개업. 부산시 중구 중앙동2가. 051-245-1659

朴倫性=(화실 이전)부산시 서구 동대신동1가 392-1번지 경상빌딩 3층. 제2회 가림전(문화상 작품전) 개최(4/29~5/7). 051-245-3633

朴在春=3월17일 부친 별세

어디서무엇을

제16회

金政夫=6월18일 장녀 명선양 결혼

金茂光=우정기업사 사장. 5월29일 장남 현우군 결혼

金太洙=(자택 이사)부산시 수영구 남천1동 삼익뉴비치아파트 506동 607호

金漢善=동기회사무실에 선풍기 2대 기증

盧祥鉉=청십자의원 원장. 6월24일 부산문화회관에서 가곡 작곡 발표. 051-784-4361

盧源昭=영남대 보건진료소 진료의사

朴龍一=(주)온팍스(주) 대표이사. (사무실 이전)부산시 동구 초량1동 1203-14번지. 051-468-1537~8

朴鍾鳳=혜화여중 교장. (자택 이사)부산시 해운대구 반여1동 롯데2차아파트 202동 1902호

孫石植=5월5일 장남 남일군 결혼

楊正德=(자택 이사)부산시 연제구 연산1동 315-47

嚴柱益=캐나다로 출국

尹昱善=부산시 영도구 영선2가 I Zone빌 101동 1006호. 051-414-9867

尹澤相=미국 휴스톤 근무중 일시 귀국

李東根=4월 27일 캐나다에서 귀국. 모친상 치름

李性仁=동마산병원장. 4월23일 차남 창현군 결혼

李鍾皓=부산시의회 환경보사위원장. 5월5일 대연초등학교동창회장으로 체육대회 치름.

鄭秀炳=대방건설 사장. (자택 이사)부산시 사하구 당리동 16-7번지 당리1차동원베네스트 103동 1503호. 051-291-8443

朱洛坤=동기회사무실에 신형 정수기 기증

崔英旭=구세산부인과원장. (병원 중축)부산시 충무동로타리. 051-253-5555

河浩吉=4월5일 모친 별세

제18회

金元泰=김원태 회계사무소 소장. 051-241-0700

어디서무엇을

宋旻浩=3월21일 부친 별세

申秉湜=한국대학바둑 OB연맹 초대 회장 선임. 5월7일 제1회 한국대학바둑대회 개최

尹必鉉=5월1일 장남 결혼

李東鎮=4월30일 장녀 결혼

林炳用=부산대 의과대학장

鄭基昊=부산대 교무처장

河析鳳=자강산업 상무 취임

河鎮泰=동부건설 부사장 취임

제25회

林相澤=가마솥 손갈국수 뷔페 개업. 해운대 장산전철역 옆

禹元鑑=정희약국 대표. 051-241-

0110

李大運=호수약국 대표. 051-621-5531

李祐三=팔도약국 대표. 051-752-3666

李炯學=세양유화 대표. 051-782-0092

李鎬國=부산시 중구 보수동2가 72-16. 051-244-9113

張壽一=신성그래픽 대표. 051-865-2088

曹正甲=참스라인 부산사무소 소장. 051-316-3217

陳湘永=부산시 사하구 괴정동 935-14. 051-291-7429

千斗甲=유니코상사 대표. 051-319-3931

千益柱=천경주단 대표. 051-246-2508

崔康登=(주)정공산업 대표이사. 051-261-2911

崔喜英=부산시 연제구 연산9동 한양아파트 21-207. 051-758-6606

河真鳳=부산시 북구 모라2동 삼성그린코아아파트 103동 2009호. 051-989-8793

洪光喜=부산시 동래구 온천1동 금강빌라 B동 202호. 051-555-0508

洪鍾秀=SK콜렉션 대표. 051-514-0113

洪昌宇=부산시 수영구 망미동 로얄아파트 105동 401호. 051-751-2486

黃明吉=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대림아파트 102동 301호. 051-701-8393

제20회

權奇祐=5월28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딸 영아양 결혼. 051-556-2179

盧基太=국제신문사 사장 7월1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아들 광현군 결혼. 051-500-5012

朴萬玉=선일공업사 대표. 5월6일 모친 별세. 052-266-4870

朴勝鉉=6월4일 모친 별세. 02-525-3641

崔長夏=최요한성형외과원장. 6월18일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딸 소희양 결혼. 051-816-3800

제21회

姜洙慶=6월2일 본부동창회 “용마바둑회”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임. 055-321-4224 ·

세종상가 1층. 051-702-0089

제27회

金聲傑=연세대 교무처 교무부장으로 영전. 02-2123-2082

제28회

金祺部=김앤장 사무소 이직.(e-mail)kimkt623@hanmail.net

盧泰漢=단국대학교(천안캠퍼스) 독일어전공 교수. (e-mail)thnho@daekook.ac.kr

朴孝誠=경남 창원시 대방동 성원3차아파트 304동 605호. (e-mail)hsp999@naver.com

申孝徵=3월 25일 (주)지엔지 개업. 경기 평택시 지산동 768-3 2층. 031-611-1991 · 010-2255-7258

吳賢錫=5월28일 국방부 중앙성

010-4800-6040

金桂洙=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51 패밀리아파트 1동 1404호

02-6677-7767 · 011-799-3767

金文成=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880 동일스위트리버아파트 102

동 1402호. 02-6404-1578

金永華=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192-55 동방드림빌 A동 102호.

02-909-2263

金原達=4월21일 건축마감재 생

제19회 '회춘의 쇼쇼쇼' 대공연

졸업 40주년 기념 홈커밍축제에 250여 명 모여

본부동창회장 공로패
박성규·조경래 받아

사은의 밤 미리 베풀고
모교에 격려금 300만원

이어 안강태(11회·대선조선 대표이사) 본부 회장을 비롯한 내빈 소개·유공 동문 표창·부산 회장 환영사·재경 회장 축사·본부 회장 격려사·만찬·여행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기주 축제집행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오늘 모교방문 40주년 축제는 우리 동기회의 빛나는 전통과 위상을 응변하는 것"이라며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중추적 역량을 결집하자"고 말했다.

앞서 안강태 본부 회장은 박성규 조경래 동문에게 공로패를, 배지호 김봉호 동문에게 순금기념배지를 각각 수여했다. 그리고

제19회동기회 졸업 4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축제가 이기주·임장주 부산·재경 회장의 공동 주재로 지난 5월 19일 사은의 밤과 21~22일 동문·가족 어울마당 등 2개 테마로 나눠 뜻 깊게 거행됐다.

이번 축제의 서막인 사은의 밤은 19일 오후 7시 부산롯데호텔 극장식 식당에서 열여덟 분의 음



한 졸업 제 40 주년 기념 모교 방문 영

제19회 동문들이 졸업4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축제를 맞아 모교를 방문, 추억 깃든 원형교사의 2-3층 난간에 빙 둘러서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를 모신 가운데 치러졌다.

이기주 축제집행위원장(동기회장)은 위원 전원과 서울·울산·마산·창원·대구·대전·인천·수원 등 지역회 회장 등 3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은사께 장수를 비는 뜻이 담긴 기념품을 증정하고 저녁식사를 대접했다.

사은의 밤에 이어 21~22일 속행된 동문·가족 어울마당은 국내외에서 250여 명이 참석, 새로운 추억을 연출했다.

어울마당 첫날인 21일 용마가족들은 이날 오후 3시 경남고에 집결, 교정을 둘러본 후 단체 사진을 촬영했고, 곧바로 해운대로 이동했다.

오후 6시30분 해운대 조선비치 호텔 대연회실, 이기주 축제집행위원장이 주재한 어울마당 제1부 기념식이 막을 열었다(사회: 강영범 동문). 기념식은 교가체창에

권명미 경남고 교장은 박동화 백용환 동문에게, 김철곤(16회) 경남중 교장은 황태원 이인석 동문에게 각각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편 이기주 축제집행위원장은 권명미 경남고 교장에게 200만 원, 임장주 재경 회장은 김철곤 경남중 교장에게 100만 원을 각각 모교 발전 기금으로 전달했다.

오후 8시 허홍욱 동문의 사회로 진행된 제2부 '회춘의 쇼쇼쇼'

는 러닝타임 110분짜리 '아무도

못 말리는' 노래·장기자랑으로

기획됐다.

어울마당 마지막날인 22일 오전 8시, 해운대 원조복국집에서 아침식사를 한 일행은 세계적 관광명소인 광안대교 등을 관광한 후 감포 횟촌까지 이동, 부산 아니면 맛볼 수 없는 달착지근한 생선회 위주의 오찬과 이별주로 해단의 정을 나눴다.



경남중의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 빌려준 제13·14·25회 졸업앨범(원쪽부터)의 표지

"졸업앨범 꼭 좀 빌려주세요" 경증, 호응도 낮아 다시 호소

제1~12·17·22·23·54·56·57·59회 대상

"제13·14·25회 협조
대단히 감사합니다"

"졸업앨범 빌려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최근 학교 홈페이지에 제1회부터 제62회까지의 졸업앨범을 구축하고 있는 경남중(교장 김철곤·16회)은 본부동창회보(제353호)를 통해 "졸업앨범 좀 빌려주세요"라고 간청한 결과 제13·

14·25회가 이에 호응해줘 "대단히 감사합니다"는 뜻을 전하고 있다. 경남중은 아직도 제1~12·17·22·23·54·56·57·59회의 앨범을 구할 수 없어 "졸업앨범을 꼭 빌려주세요"라고 호소하며 동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청하고 있다.

모교에서는 이 같은 졸업앨범을 빌려주면 홈페이지에 구축한 후 되돌려줄 것을 약속하고 있다.

*연락처 : 051) 256-0937 경남중 행정실



본부 용마산
악회의 제20
차 산행대회
(5월 8일)에
참가한 회원
들이 경남
산청군 근교
왕산을 등정
하기 전 설
명을 듣고
있다.

110명 왕산~필봉산 단숨에 등정

본부 용마산악회 제20차 산행대회 성황

본부 용마산악회 제20차 산행대회('05년 제2차 정기회)가 지난 5월8일 경남 산청군 왕산(923m)~필봉산(848m)에서 펼쳐졌다.

정준수 회장(15회)이 이끈 이날 산행에는 한동대(9회)·제병민(13회) 고문을 비롯해 110명(가족 22명 포함)이 참가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 산행 들머리인 덕양전을 출발한 일행은 1시간50분 만인 오후 12시20분 왕산 정상에 올라 용마산악회기를 꽂았다.

일행은 이곳에서 1시간 동안

점심식사와 휴식을 취한 후 출발. 오후 2시30분 필봉산에 올라 두 번째로 용마회기를 꽂고 "모교 만세! 동창회 만세! 용마산악회 만세!"를 외쳤다. 하산길에 접어든 일행은 오후4시 항양리에 도착, 목욕과 저녁식사를 한 후 귀가길에 올랐다(19:00).

제32회 회장 김태홍 선임

제32회동기회는 지난 5월12일 부산진구 부전동 티존뷔페홀에서 '05정기총회를 열어 신임회장

<龍馬24> 5호 발간
제24회 동기회 대변지

제24회동기회 대변지 <龍馬24>(발행인 최승국/편집인 김영철) 제5호가 다채로운 읽을거리와 각종 정보를 골자로 편집돼 최근 발간, 동문·가족들에게 신선한 즐거움을 주고 있다. 이 회지는 타블로이드판 4쪽을 컬러로 꾸며지고 있다(사진은 표지).

제5호에는 1면 ▶4월 월례회 소식 ▶'05 춘계 山友愛 호남탐방기(산우애:동기회 등산 모임 이름) 등을, 2면에는 ▶용마단상-젖은 낙엽과 야구/김도현 ▶동기회소식-24GOLF 회·이사달(달리기 모임)·산타래(재경회 등산 모임)·이사들(바둑모임)·후라희(야구 모임)행사 등을 각각 실었다.



또 3면에는 ▶전문가 칼럼-음악으로 하는 노후생활 준비/오성환 ▶동기부인칼럼-시어머니를 생각하며/윤경자(정기호 동문 부인) ▶연회비 납부 안내 및 납부자 명단. 4면에는 ▶동문탐방-부산대 상대 황규선 학장 ▶그 때를 아시나요?-격세지감/장민재 ▶영진·자녀 결혼 등과 부모 소식 ▶편집후기 등을 게재했다.



에 김태홍 동문
(한림학원 원장·
사진)을 선출했다.

김대식 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40여 동문이 참석 결산·예산안을 승인한 후 임원 개선에서 감사에 이성호·재무에 정성수·총무에 박종우 동문을 각각 선임했다.

김태홍 신임회장은 김대식 직전회장을 비롯한 전임 임원들에게 순금배지를 전달했다.



글로벌 경제시대의 새로운 시각 First-Class 경제신문

파이낸셜
뉴스

경남고 21회 全 在 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4-5 파이낸셜뉴스빌딩